

부산 경제일지
(2024년 4월중)

4.2. ▶ 산업은행, '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방안 설명회' 개최

- 산업은행은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동남권 지역 주요 거래처 35개사 CEO를 대상으로 동남권 벤처 및 해양·물류 관련 지원프로그램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
 - 지역소재 혁신 기업들의 투자유치 및 영업확대 지원을 위한 벤처 플랫폼 출범(23.5월), 동남권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'부산 미래성장 벤처 펀드' 조성(24.4월 예정) 등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을 소개
 - 또한 중소·중견 해운사의 친환경·스마트 선대 전환 지원을 위한 14억 달러 규모의 'KDB SOS(Smart Ocean Shipping) Fund'를 출시하였음을 설명

4.26. ▶ 한국공항공사,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확장 개장

-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이 5년간의 확장공사를 마치고 본격 개장
 - 터미널 면적이 기존대비 24.6% 늘어남($72,027\text{m}^2 \rightarrow 89,782\text{m}^2$)에 따라 연간 630만명이던 국제선 수용능력이 830만명으로 확대
 -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체크인카운터, 신분확인대 등 여객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터미널과 분리된 입국장 신설

4.30. ▶ 부산, '글로벌 혁신 특구' 최종 선정

-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'글로벌 혁신 특구' 공모에서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선정*

* 14개 시도가 응모하여 부산, 강원, 충북, 전남이 최종 선정

- 이번 사업에는 한국선급, HD한국조선해양, HMM 등 국내·외 선박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고 파나시아 등 20여 개의 부산 조선 기자재 기업도 특구사업자로 지정 되었음
- 특구사업자는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특례를 인정받아 향후 4년간 친환경 기자재 실증과 자율운항선박 R&D 등을 수행
- 정부와 시는 국내·외 실증, 해외인증, 책임보험, 그리고 사업화와 수출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